

# 복음 가문 회복과 참 성전 회복 - 역대상

역대상 29:10-19, 미대복음 22:41-46

정운돈 목사님

## 요약

서론 :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역대상이다.

### 1. 가문을 살려라.

- (1)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울 때문에 자녀들이 실패했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축복을 받았다.
- (2) 자녀들의 받을 축복이 있다. 가문의 문제와 싸우고 발판으로 삼아라. 복음으로 자신을 살리고, 달란트를 발견하고 준비해서 서명이 되라.

### 2. 참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라.

- (1) 사울의 실패를 거울삼아,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쓴 뿌리를 뽑아내어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 (2) 다윗이 준비한 것처럼, 언약계 중심으로 살고, 구체적으로 성전과 교회를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결론 : 참 복음을 가지고 가문과 교회를 살려내어야 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채워지는 시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붙잡은 기도제목이 열매맺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어, 도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메시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시며, 성도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레미를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현장에서 성취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 3천 제자, 40만 제자, 1천만 제자를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나의 나라, 나의 선교사역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역대기는 다시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기록했다는 것은,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가 기록되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기록한 역사서라는 의미이다. 역대기는 BC 450년 경에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에스라는 학사 겸 선지자였다. 사실상 구약성경 전체를 정리한 인물로 생각되고 있다. 약 100년 전에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가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정리한 인물을 보통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의 입장과 에스라의 입장이 전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너희가 모세를 통해 받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은 이방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해서서는 안 된다.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우상을 섬긴 많은 왕들이 다 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하고 전쟁에서 패했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간곡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내용이었다. 역대상하는 그 후의 이야기다. 북 이스라엘 지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져 버렸다. 남아있는 유다 지파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이 된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겠다.’ 고생 끝에 이것을 붙잡게 되었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것이 성취된 것이다. 고레스 임금 스스로는 불신자이면서도,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돌아와서 건축을 잘 하고 있었다.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과거와 달랐다. 말씀을 지켰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스톱바벨 성전을 회복시켰다.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 스톱바벨 이후로는 제대로 된 통치자가 없었고, 성전도 이름 담지 않고 초라했다.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보고 평평 울었는데, 과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던 것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다윗, 솔로몬 같은 왕이 다시 우리를 통치할 그 날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울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다.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들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다시 받아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100년 후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두고 해석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역대상하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결론의 메시지이다. 처음 구약성경을 정경화할 때는,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상하가 구약성경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었다. 결론이 마지막에 나지 않나? 예수님도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을 역대하로 보셨었다. 그 내용이 눅11:51에 나와 있다.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라의 피까지.” 순교자를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스가라라는 인물은 역대하 24장에 나온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피에서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라의 피까지를 구약성경 전체로 요약하신 것이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구약성경의 결론의 메시지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문을 살려라.

역대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가문을 살리라는 것이다. 역대상에서는 독특한 것이,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대상1:1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아담이다. 3절에는 에녹, 므두셀라가 있고, 4절에는 노아와 세 아들이 나온다. 그들은 조상들이라고 했다. 우리 인류 전체의 조상이 노아다.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인류의 모든 인종이 나왔다. 셈이 황인, 함이 흑인, 야벳이 백인이었던 것은 아니고, 유전적으로 보면 다들 혼합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노아의 방주에 갇히지 한 쌍만 타고 있었어도, 그 아래에서 수많은 종류의 갇히지가 유전적 돌연변이를 통해서 다 태어날 수 있는 것과 같다. 우리의 조상은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라 노아인 것이다. 이렇게 역대상은 족보로 가득차 있다. 29장까지의 역대상 중 1/3이 족보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 가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 가정, 가문, 후대, 민족을 다 살려낸 대표적 축복을 받은 인물이었다. 여러분이 가정, 가문, 후대, 민족을 갱신시키는 역할을 하시기 바란다.

(1) 이것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윗은 부모의 역할을 잘 했다. 자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었다. 대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빠르게 각인을 모두 시켜 놓았다. 우리도 후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장로님들이 모든 각인과 준비를 다 해두시면 좋겠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던지, 금, 은, 동을 다 헌금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고 했다. 신앙도 좋았고 물질도 많았다는 것이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귀, 영화가 다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지어라’ 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장면이 역대상의 마지막 내용이다.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여러분도 고령이 될 때까지 건 강하고 부하시기를 바란다. 복음공동체가 되어지면 된다. 그 안에 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면 모든 축복이 회복된다. “조끼를 누리다가 죽으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녀들에게 이 응답과 축복, 물질을 다 물려주고 갔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이 내용을 에스라 선지자는 기록했을까? “야, 봐라. 우리 조상들이 우상삼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얼마나 저주, 재앙을 받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제발 다윗처럼 믿어라.” 이것을 역사서를 해석하면서 에스라가 전달한 것이다. 솔로몬은 문제이었다. 머리만 똑똑했다. 나중에 가서 다 드러난다. 응답받고 잘 되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고, 천 명의 후궁을 거느리며 우상을 허용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에스라의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복을 받았던 것은 다윗 때문이다. 솔로몬은 아이큐만 높았지 별로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다. 성품도 좋고 훌륭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왕과 함께 전쟁에서 죽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가 믿음으로 섰을 때 자녀가 성전을 짓는 축복을 받았고, 요나단은 그렇게 그릇이 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 않나. 이것을 뺏속깊이 부모님이 먼저 각인시켜야 한다. 이 메시지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격대교육,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하며 생명을 걸고 붙잡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외우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한다. 각인시키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보며,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부모님으로부터 생명 걸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실천하도록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한다.

### (2) 그러면 자녀들이 할 것은 무엇인가?

① 가문의 문제와 철저히 싸워야 한다. 1차합속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과 대화를 해 봤다.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한 자제가 난데없이, “저는 상담을 받아야 할 큰 문제가 있어요.”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들고, 예배 드리러 가면 메시지 듣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러 더 힘들죠?” “아, 맞아요.” 그래서 말했다. “정말 축복을 받으셨네요.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를 아가씨가 온 몸으로 이기고, 내가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는 길에 서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다락방하고 치유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 주고,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자리인 줄 모른다. 그러나 그 자리는 정말 영광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다. 램넛트 중에서 새롭게 믿음의 조상 되는 사람이 있다. 힘들었던 현장에서 버티려면, 생명 건 헌신과 결단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다. 다윗 같은 훌륭한 인물도 열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하니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왕이 죽이려고 싶어 너를 쫓아다녔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었기에 결국 승리했다. 여러분도 스스로 훌륭한 게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키시겠다고 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실 줄 믿는다. 가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단점과 장점을 다 승화시키기를 바란다. 부모님에게 우상숭배의 문제, 영적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그 모든 아픔, 단점, 상처도 다 축복으로 변함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 남편이 너무 성격이 이상하다.” 그것 때문에 사망자가 된 여자분들이 많다. 여러분을 시대적 사망자로 세우시려고 여러분에게 좋은 남편을 주신 것이다. (웃음) 그리고 여러분이 사망자가 되면 남편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람을 붙이셨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저주하면 안 된다.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용서해야 한다. 정말 참 복음을 가졌다면,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 담을 헐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으로 함께 하면 응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승화시켜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새로운 아담, 새로운 노아, 새로운 다윗이 되어야 한다.

② 구체적으로 나와 후대가 응답받아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나를 복음으로 살려야 한다.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민족 전체를 살린다고 했다. 나를 먼저 살리면 남편, 자녀를 살릴 수 있고, 내가 행복하면 우리 가문과 민족을 살릴 수 있다. 그 인물이 다윗이었다. 다윗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다윗은 언약케 중심이었다. 성막, 그리스도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했다. “다윗이 내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냥 성전 준비를 한 게 아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언약케 중심으로 살았다. 성전을 다 지은 후에도 언약케를 모셨다. 항상 언약케 중심이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했다.

③ 구체적으로 우리 후대는, 어릴 때부터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진 다윗처럼, 작은 것이라도 달란트를 찾아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서, 10% 안에 들어가라. 1% 안에 들어가라. 전문가가 되라. 어제도 끝나고 나서 방글라데시에 학교를 건축하는 것을 두고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자신이 기술사라고 했다. 기술 분야의 사법고사와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 여러분이 이런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서밋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만 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이다. 문화를 살리는, 만 명 중 한 명 있는 서밋이 되라.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분야를 살리는 진도제자가 되라. 우리 램넛트는 그런 서밋이 되고 부모님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 2. 참 성전과 교회를 회복하라.

참 성전과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1) 참 성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사울과 같이 그릇을 비우지 못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쓴 뿌리와 상처를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교회에 피해를 주게 된다. 그래서 사울의 것을 버려야 한다. 사울은 시기, 질투, 욕심의 욕심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좁은지 모른다. 옳은 말을 하지만 수용은 못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다. 어머머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좁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셨는지 생각해 보면, 그것이 기적이다. (웃음) 속을 넓혀라. 조잔하게 굴지 말고, 멋있게 행하라.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래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십자가가 뭐냐?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떠미는 것이 창세기 3장이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시기 바란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참된 교회를 회복시키려면 그로부터 비워야 한다. 그게 복음 아닌가? 귀로만 들어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었는가. 입으로만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거들떠보지 않으면, 그 복음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닌가. 결국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다. 내 체질을 못 바꿔서 자녀들도 함께 멸망에 빠졌다.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참된 복음이 그 안에,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큰 응답, 큰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기적이면 안 된다. 누가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겠는가. 실력 있는 사람은 큰일은 못 한다. 함께 가고 큰일을 하려면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응

답을 누리시기 바란다. 복음 아닌 다른 체질로 뿌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기, 질투, 인간의 담을 헐어야 한다. 나쁜 습관, 숨겨진 습관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 그게 안 바뀌면 더 큰 응답은 못 받는다. 우리가 다윗처럼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실체한 왕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북 왕국의 왕들 중에서는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야 한다. 복음으로 나를 깨뜨려야 한다. 다니엘을 보면, 뜨인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깨뜨리고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한다. 한열산 기도원의 이천석 목사님은 ‘와장창 중창 주창창창’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깨어져야 응답받다는 말이다.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정말 깨어져야 할 게 많다. 복음으로 완전히 깨어져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한다.

(2) 다윗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① 언약케 중심, 성전 중심으로 평생 살았다.

②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을 두고 진실하게 즉각 회개했다.

③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발견했다.

④ 언약케를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을 준비했는데 그냥 준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준비했다. 역대상 21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이 성전 준비한 내용이다. 생각해 보라.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 같으면 어찌겠는가?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리고 내팽개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성전 지을 준비를 철저히 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돌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했으며, 못도 많이 준비해 놓았다. 얼마나 구체적이진지 모른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못과 무수한 백향목을 준비했다. 왜냐?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후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을 준비했다. 성전만 준비하면 무슨 소용인가. 목회자가 없으면 안 된다. 다윗은 이 핵심적인 것을 알았다. 레위인 제사장을 그래서 철저히 준비시켰다. 나는 어제도 너무 감사했다. 김완식 목사님, 박용배 목사님 같은 중요한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다. 한 분 한 분 오셔서 메시지 주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서해영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1:1 양육을 하도록 은혜를 주신다. 레위인들 아닌가. 류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게 하신다. 각자가 받은 중요한 달란트가 다 있다. 찬양을 잘 하는 분도 있고, 행정을 잘 하는 분도 있다. 찬양대를 이끄는 목사님도 있고, 후대 사역을 하는 목사님도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레위인, 제사장이 든든히 서는 것이다. 그때 성전도 민족도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란다. 대상23:5를 보면, 찬양대가 4천 명이나 있었다. 문지기도 4천 명이나 있었다. 보일러, 전기, 다 돌아보는 준비를 한 것인데, 우리가 세계 살릴 1천만 제자를 세우려면 이런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것을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다. 24장에는 제사장을 준비하는데, 24개의 팀을 짰다. 그리고, 대상24:19을 보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직분에 따라 역할이 다 달랐다. 그것을 아주 철저히 준비했다. 과거에는 제사장 지파만 있었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자. 구약장, 권찰, 새가족부, 안내, 다 역할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천명으로 붙잡고 감당하시기 바란다. 26장에는 성전 문지기를 준비했고, 곳간 맡을 사람도 준비했다. 그냥 성전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27장에 보면, 각 지파의 역할을 따로 준비시켰다. 누구의 명령인가? 왕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우리 후대 중에서 이런 정치인이 나오기를 축원한다.

역대기의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은 2500년 만에 나라를 회복시켰다. 에스라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회복된 게 아니다. 다시 헬라에 속국이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가, 또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다. 온갖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 겨우 나라를 회복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우상을 청산하고 나라를 회복시켰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복음을 받은 지 100년 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 참 복음을 가지고 가문과 교회를 살리기를 바란다. 지금 종교다원주의와 온갖 다른 전통으로 인해 한국 교회는 위기 속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민족, 세계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구호를 외쳐 보자. “참 복음으로 가문을 회복하자. 참 복음으로 교회를 회복하자.”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이주시고, 다윗도 솔로몬도 같이 못 깨달았던 그리스도, 그 복음, 성전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사랑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들부터, 어린 후대들부터, 장로님과 교역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천명, 사명, 소명을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서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원토록 축복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